

# 韓國 大學教育의 問題意識

— 教育의 意味에 비추어 본 —

朴 在 文

(忠北大 教育學科 助教授)

大學이 學問을 研究하고 教授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로 命題—어떤 질문에 관한 압축된 해답—을 創出해 내는 일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大學教育은 이러한 일에 성공적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 大學教育의 成敗를 말할 수도 있다.

“You know how, in an argument, people who have no real education care nothing for the facts of the case, and are only anxious to get their point of view accepted by the audience. Well, I feel that at this present moment I am as bad as they are, only with this difference; that my anxiety will be not to convince my audience (except incidentally) but to produce the strongest possible conviction in myself.” (Plato, Phaedo, 91a)

## I

이 글을 시작함에 앞서, 글 첫머리에 引用한 句節의 뜻과 같이,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問題에 관한 나의 問題意識을 다른 사람들에게 ‘說得’ 시키려고 하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獻身하고 있는 ‘大學教育’에 관한 問題意識이 과연 問題意識으로서 올바른 것인가를 내 자신에게 確信이 가도록 하는 데 나의 모든 관심이 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 大學教育처럼 의견이 분분

한 것도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大學教育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論難이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우리나라 大學教育이 어떤 점에서인가 失敗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점에 우리나라 大學教育이 失敗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大學教育觀’에 따라 자기 다르겠지만, 大學教育이 失敗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大學教育을 논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달리 말하면,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大學教育이 만족스럽다는 評價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大學教育은 과연 어떤 점에서 失敗하였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사실상 問題는 우리나라의 大學教育이 어떤 점에서 失敗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探究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흔히 大學教育의 性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 나름대로 大學教育의 性格을 정해 놓고, 거기에 비추어 大學教育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런 점에서 大

學教育이 실패하고 있고, 그 점에서 大學教育은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의 초점은 바로 우리나라 大學教育이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을 세밀하게 따져 보아 그 問題를 드러내는 데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여러 가지 형편상 우리나라 大學教育이 실패하였다고 생각되는 점을 세밀하게 探究하려는 하나의 試圖에 그칠 것이다.

## II

大學教育의 性格과 機能은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파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性格을 파악하는 데 관심이 있다. 만약 우리가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性格을 파악한다면, 그것에 비추어 우리나라 大學教育이 정말로 어디에 失敗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나라 大學들의 設立目的과 教育理念에서 그 性格을 알아 보는 것도 한 가지 方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몇 개 大學들의 設立目的과 教育理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겠다.

「●서울대학교 : 본교는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 정칙한 응용방법을 교수하고 연구개발하는 동시에 학술연구의 지도능력과 독창력을 함양하며 협동정신이 풍부한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하고 연구와 사회의 각 전공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이 나라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려대학교 : 본 대학교는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 정칙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는 동시에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세대학교 : 본 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기하여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 정칙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한다.」〔出處 ; 韓駿相, 韓國 大學教育의 犠牲(서울 : 文音社, 1983), pp. 417—425.〕

이상에서 引用되고 있는 大學들의 設立目的과 教育理念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부분이 있다. 이상하다고 생각될 정도인데 그것은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 廣範精緻한 應用方法을 教授하고 研究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大學에서는 學問을 研究하고 教授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大學教育의 性格의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學問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며, 이것을 推論해 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大學生들은 대학이 學問을 하는 곳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지를 實證的으로 알아보겠다. 이 일에는 다음의 질문지 내용과 이에 대한 응답 상대빈도가 우리에게 어떤 점을 示唆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질문 : (우리) 대학교육은 전 인격을 감싸는데 성공할 수 있는 경지까지 그 사람의 고유한 인간성을 고양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인간성은 논쟁의 경험, 이해력, 타인의 관점과 평형이 되게 사고하는 능력, 솔직함, 수양과 일관성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인간성 유형은 의식적인 목적이 아닌, 대학생활을 통해 저절로 얻어지는 부산물이다. 결국, 대학교육은 성격에 있어 소크라테스적이다. 대학교육은 의미있는 자유라는 목표를 향한 형성과정이다.」

응답 :

|       | 사례 빈도수 | 상대빈도 (%) |
|-------|--------|----------|
| 반 대   | 709    | 60.5     |
| 찬 성   | 282    | 24.1     |
| 무 응 답 | 180    | 15.4     |
| 계     | 1,171  | 100      |

〔出處 ; 韓駿相, 韓國 大學教育의 犠牲(서울 ; 文音社, 1983), p. 377.〕

이상의 질문내용과 응답에서 우리가 注目해야 할 점은 大學教育의 性格을 ‘眞理追究型 大學觀’<sup>1)</sup>으로 보지 않는 學生이 1,171名 가운데 60%가량이 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없는 것은 “대학교육은 성격에 있어 소크라테스적이다”라는 진술과 “대학교육은 의미있는 자유라는 목표를 향한 형성과정이다”라는 진술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大學教育은 성격에 있어 소크라테스적이다”라고 할 때 ‘소크라테스적’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뜻이 들어 있다. 이 말 속에는 大學教授가 ‘아는’ 사람으로 君臨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으로 自處하여 學生의 見解를 들어보고, 만약 學生의 見解 속에서 옳지 못한 점이 발견되면 그 점을 지적해 주어, 학생들 스스로 자기 자신의 見解가 옳지 못함을 깨닫도록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學生의 見解가 비록 教授 자신의 見解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더라도 教授는 반대되는 다른 편에 서서 學生들 자신의 見解를 보다 완전한 상태로 確立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다. 특히 “大學教育은 의미있는 자유라는 목표를 향한 형성과정이다”라는 말에서의 ‘大學教育’은 그 性格을 ‘自由教育’(liberal education)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自由教育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다.

하나는 消極的 意味이다. 그것은 원래 ‘自由民’을 위한 教育이지 노예를 위한 教育이 아니라는 뜻에서 파생된 의미로서, 특정한 職業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技術을 가르치는 教育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積極的 意味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無知와 偏見에서 ‘自由롭게 하도록’하는 教育이라는 뜻이 들어 있다. 지금까지의 말을 종합해 보면, 大學教育의 性格에는 教授가 研究하고 가르치는 學問을 통하여 學生들로 하여금 無知와 偏見에서 벗어날 수 있는 理解力과 判斷力을 길러 주는 독특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大學이 學問을 研究하고 教授하는 곳이라는 데 반대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學問을 통하여 “全人格을 감싸는 데 성공할 수 있는 경지까지 사람의 고유한 人間性을 고양시킨다”고 하면, 여기에는 懷疑를 품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大學教育’의 概念 속에 “學問을 研究하고 教授한다”는 意味가 內包되어 있다면, 어찌하여 사람들은 大學教育에서 學問을 통하여 人格을 陶冶한다는 데 그토록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問題를 정확하게 따져 보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어떤 해답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우선, 大學에서 ‘學問을 理解’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가? 이 問題를 생각해 보기 위하여 Jacques Barzun의 다음과 같은 말은 거듭 吟味해 볼 필요가 있다. 즉,

“教育이라는 것은 細部事項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난 뒤에 남는 그 무엇이다. 化學을 배운 뒤에 그 細部事項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난 뒤에 남는 그 무엇이다. 化學을 배운 뒤에 그 세부사항들을 모두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남는 것이 있다. [무엇이? 그것은 化學을 배운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만드는 것의 細部事項들을 모두 잊어버렸다고 하자. 무엇이 남을 것인가?”<sup>2)</sup>

이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좀더 세밀하게 따져 보도록 하자. 만약 ‘아이스크림 만들기’가 누구나 귀중하게 여기는 技術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어떤 技術을 통달한 사람을 ‘教育받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教育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법상의 요령을 터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化學을 배운 뒤에 그 細部事項들을 모두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化學에 관한 ‘一群의 知識과 某種의 概念構造’<sup>3)</sup>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化學에 관한 教育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해당 학문분야의 ‘一群의 知識과 某種의 概念構造’를 가졌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화이트헤드(Whitehead)가 말한 바와 같이 해당 학문분야의 知識이 ‘無氣力’한 知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그 知識이 斷片的인 知識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內面化되어 그 知識을 통하여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大學에서 化學을 專攻하였다고 하면서 化學에 관하여 이것 저것 잡다한 事實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自然現象을 化學的인 眼目으로 바라볼 수 없다면 그런 사람은 化學을 教育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學問을 理解’하도록 가르쳤는가 할 때의 ‘理解’는, 바로 해당 학문의 概念이나 原理, 法則 등이 學生의 思考 속에 內面化되어 그것을 통하여 해당 학문이 제시해 주고 있는 現象을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말에 비추어 우리의 大學 현실을 보자. 大學에서는 적어도 지금까지 人類가 쌓아 올린 ‘文化遺産의 總體’라 할 수 있는 歷史, 文學, 哲學, 自然科學, 藝術 등을 가르쳐 왔다. 그러던 大學에서 이와 같은 學問들을 가르쳐 오면서 해당 학문분야의 知識을 學生들의 思考 속에 內面化시켜, 그것을 통하여 해당 학문분야가 제시하는 現象을 ‘분’ 수 있도록 해 주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 질문에 우리는 얼마만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만약 자신있게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바로 이 일에 失敗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해당 학문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해당 학문과 여러 다른 학문과의 관련, 말하자면 삶의 정연한 패턴 속에서 해당 학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허친스(Hutchins)에 의하면, 그는 ‘사람’을 가르는 教育과 專門的인 技術을 가진 ‘專門家’를 가르는 教育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教育받지 않은 專門家, 다시 말하면 專門的인 技術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教育’을 받지 않은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던 教育받지 않은 專門家란 어떤 사람인가? 해당 學問에 관한 原理에 관하여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해당 학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教育받은 사람’이라고 부르기에겐 어쩔지 못마땅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해당 학문분야에 관해서 매우 制限된 생각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예컨대, 數學을 공부하면서 數學이 다른 學問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거나 數學 이외의 學問에 전혀 흥미가 없는 종류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大學에서 ‘教育받지 않은 專門家’를 길러 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만약 이 질문에 ‘教育받지 않은 專門家’를 길러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바로 이 일에 失敗하고 있는 것이다.

### III

지금까지 우리나라 大學教育에 관한 問題意識은 大學教育이 정확하게 어떤 점에서 실패하고 있는지를 세밀히 따져 보려고 하는 데서 찾았다. 만약 우리나라의 大學에서 學問을 가르쳤지만, ‘學問을 理解’하도록 가르치는 데 실패하였다면, 이때까지 우리는 學問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教育받은 사람’으로 기르는 데 실패하였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大學 講義室에서 벌어지고 있는 授業場面을 살살이 조사해 볼 수는 없다. 다만 우리는 한두 가지의 事例를 통하여 짐작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의 事例로서 실제 참여관찰 기록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교과명 ; 사상사개론(가칭)

참여관찰 일시 ; 1982년 6월 9일 12시 30분~1시 15분  
수강 대상 ; 문과계열 1학년 260명 정도

교수 ;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40대 남자교수

담당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제 시간에 들어오는 적이 없어.”

12시 38분 ; 교수가 들어왔다. 출석부란 든 조교가 따라 들어왔다. 교수는 강단에 서자 “왜 빈자리가 많죠?”라고 물었다. 학생들이 “X×과 체육대회예요”라고 여러 명이 함께 대답했다. 교수는 칠판에 다음과 같은 판서를 했다.

Pragmatism (實用主義)

J. S. Pierce

W. James

J. Dewey

강단 위에 놓여 있는 탁자 위에 부착된 마이크를 잡았다. 이어 강단 위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교수가 착석하는 시간까지 학생들의 잠담이 계속되었다. 조교가 출석부를 들고 뒤에서 출석운 점검했다. 그리고는 나가버렸다. 곧 교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생에 있어서의 타당성을 참 혹은 진리라고 보는 견해의 하나를 우리는 프라그마티즘에서 보게 됩니다. 프라그마티즘은 미국의 정신이고, 거의 미국에만 있었다고 봐도 좋죠. 미국다운 성격인데, 미국은 늦게 시작한 대륙 국가죠, 한 200년 전 아메리카 하계 되면 문화나 사상은 거의 황무지라 보아도 좋을 정도의 나라였읍니다. 그러나 교육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고, 또 구라과 문화가 천학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니  
가 가장 짧은 기간에 특색있는 또 어떤 면에서는 좋은 나라를 만든 나라입니다.”

교수는 앉아서 설명식의 강의를 계속했다.

12시 44분; 뒷줄 구석 학생이 하품을 하기 시작했다.  
한 학생이 강의실에 들어왔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12시 46분; 맨 뒷줄 좌석의 한 남학생이 졸기 시작했다.  
이어 그 옆의 두 여학생이 잠담하기 시작했다.

12시 50분; 뒷 좌석 두 명의 남학생이 소선택 같은  
것을 읽기 시작했다. 뒷줄 두번째의 한 여학생은 영어  
사전을 꺼놓고 노트에 무엇인가를 적고 있다.

12시 54분; 뒷 부분의 남학생 두 명과 여학생 한 명  
이 엎드려 자기 시작했다.

12시 58분; 잠자던 한 남학생이 깨어났다가 다시 엎  
드려 갔다. 강의실 앞 부분의 학생들은 자는 학생이  
없었다. 앞 좌석의 학생과 중간 좌석의 학생들은 교수  
의 강의를 필기도 하면서 듣고 있었다.

1시 1분; 뒷 좌석의 일곱 명의 학생이 엎드려 갔다.

1시 5분; 교수가 천천히 읽어 주는 대목을 학생들의  
대부분이 받아쓰기 시작했다. 필기부분은 띄엄띄엄 두  
번 읽어 주었다.

#### (省 略)

1시 6분; 자고 있던 한 남학생이 기지개를 켜다. 왼  
편 뒷줄 두번째 세 여학생은 잠담을 계속하고 있다.

1시 8분; 교수가 손목시계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강의를 계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윌리엄 제임스를 중심으로 프  
라그미티즘에 속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어떻게 보았는  
가? ……그럼, 다음 시간에 제 4 장을 공부하기로 하  
겠습니다.

1시 14분; 학생들은 책을 챙기기 시작했다.

1시 15분; 교수가 일어섰다. 그리고 수업은 끝났다.]

[出處; 韓駿相, 韓國 大學敎育의 犧牲 (서울: 文音  
社, 1983), pp. 127-129.]

만약 이 참관기록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注目해야 할 점은 “교수는 앉아서 설명식 강의”  
를 한다는 점과 “교수가 천천히 읽어 주는 대목  
을 학생들이 대부분 받아쓰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다. 이 점을 통하여 우리가 想像해 볼 수 있  
는 점은 다음과 같다.

이제 학생들은 이와 같은 講義를 받고 난 후

試驗을 보게 된다. 試驗問題의 形式은 아마도  
主觀式보다 客觀式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  
면 主觀式으로 試驗問題를 내 놓으면 채점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한 학생들로부터 抗議  
를 받았을 때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여  
간 애를 먹는 것이 아니며, 반면에 客觀式은 이  
런 문제를 상당한 정도로 제거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學生들이 이것을 모를 리 없  
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이 과목이 소위 ‘暗記  
科目’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學生들  
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敎授의 說明과 敎  
科內容의 內容을 ‘無條件’ 暗記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따라서 앞의 例에서의 授業 중에 남학생  
처럼 엎드려 지든지 여학생처럼 옆자리의 학생  
과 잠담을 하든지간에 試驗할 때의 가장 좋은  
策略은 시험보기 바로 직전에 實用主義(J. S.  
Pierce, W. James, J. Dewey)에 관한 세부사항  
들을 ‘無條件’ 외우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는 순간, 사립들 중에는 아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익숙하게 해 온 典型的인 大學講義의 모  
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립이 있을지 모른  
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서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일로 볼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을 그  
와 같은 방식으로 배우고 난 후에 과연 어떤 종  
류의 人間다운 靨點과 態度들이 길러질 수 있는  
가 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해당 學問분야의 敎授는  
지기가 理解하고 있는 내용이 [學生들에게도 그  
대로 이해되고, 자신의 靨點이 학생들에게도 그  
대로 妥當性을 가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되면, 講義에서 敎授는 흔히 ‘說敎調’로 호  
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그러나 해당 學問  
분야에서 理解水準이 높지 않은 學生들로 하여  
금 理解水準을 높여 주려고 하면, 敎授가 해당  
학문분야의 ‘理解의 結果’를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水準에 못 미  
친 學生의 水準에서 시작하여 자신이 ‘理解’에  
도달한 것과 동일한 ‘過程’을 밟아 학생들로 하  
여금 그水準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견해를 일단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견해에 비추어 앞에서 제시한 예를 검토해 볼 필요가 생긴다. 앞의 예에서 學生의 見解를 묻고 학생들의 견해 속에 담겨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그릇됨을 깨닫는 모습이 전혀 없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의 見解를 보다 더 완전한 상태로 定立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도 볼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논쟁의 경험, 이해력, 타인의 관점과 평형이 되게 사고하는 능력, 순직함 등의 대학생활을 통해 저절로 얻어지는 부산물”을 얻어 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

大學이 學問을 研究하고 教授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命題를 創出해 내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命題는 어떤 질문에 관한 압축된 回答이며, 또한 그 속에는 다음으로 생각하여야 하는 문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 大學教育에서 命題를 創出해 내는 일에 成功的인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나라 大學教育이 失敗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그 回答이 否定的이라면, 우리는 바로 그 일에 失敗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중요

한 性格이 學問을 研究하고 教授하는 데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과연 大學이 學生들에게 學問을 理解하도록 가르치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大學에서 命題를 創出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웠는가?”라는 問題를 제기하였다. 물론 여기서 제기한 問題가 문제로서 제기될 만큼 충분히 제반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제기한 문제는 나 자신이 느낀 다른 어떤 問題보다도 심각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바라건대 여기서 제기한 문제에 긍정적인 回答이 나올 수 있는 大學教育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 < 註 >

- 1) 韓駿相, 韓國 大學教育의 犧牲 (서울: 文音社, 1983), p. 34.
- 2) Jacques Barzun, *The American University* (New York: Harper & Row, 1968), p. 217. 李拱雨, 教育課程探究 (서울: 博英社, 1977), p. 19에서 再引用.
- 3) R.S. Peters, *Ethics and Educ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6), 李拱雨譯, 倫理學과 教育 (서울: 教育科學社, 1980), p. 23.
- 4) Hutchins, *The Conflict of Education in a Democratic Society* (New York: Harper and Row, 1953), pp. 67—76.